

슈퍼카 ‘격전지’ 된 한국…시간이 갈수록 잘 팔린다

한 대당 판매량 수익 원 이상 웃돌지만 벤틀리 등 판매량 최근 10여년간 급증 브랜드 수장 방한 이어져 “한국 쟁기자” “과시 문화 과하다” 우려 목소리도 커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슈퍼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슈퍼카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국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최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슈퍼카 브랜드 수장들도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며 시장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슈퍼카 포르쉐 국내 수입차 점유율 5% 육박**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성능과 뛰어난 디자인을 뽐내는 수익원 이상 슈퍼카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 대표적인 슈퍼카 브랜드로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페라리가 꼽힌다. 특히 포르쉐는 국내에서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포르쉐 차량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서 2966대 판매됐다. 이는 전년(2405대)보다 23.3% 증가한 수치다. 놀라운 것은 포르쉐의 시장 점유율이다. 올 들어 포르쉐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4.81%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6위로 슈퍼카치곤 높은 점유율이다. 일반 수입차 브랜드인 볼보자동차코리아(4위, 6.47%), 한국도요타자동차(5위, 5.34%)와 점유율과 단 1%대 차이에 그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포르쉐의 성장세는 더 돋보인다. 2012년 연간 1516대 판매에 그쳤던 포르쉐는 지난해 한국에서 무려 8963대가 팔렸다.

벤테이가, 컨티넨탈 GT 등을 판매하는 슈퍼카 브랜드 벤틀리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벤틀리는 지난해 국내에서 775대가 팔렸다. 이는 전년 대비 53.2% 증가한 수치로 2006년 한국 진출 이후 최대치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일본(644대)을 제치고 아-태 지역에서 벤틀리가 가장 많이 팔린 국가에 올라섰다. 이밖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판매량도 수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수입차 시장 확대→슈퍼카 시장 성장 이어졌다**
슈퍼카의 급성장은 수입차 시장 확대와 국내 자동차 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수입차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28만3435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13만858대)과 비교해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차량 구입 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법인차로 구입 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슈퍼카 시장의 성장 비결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금융 할부 프로그램으로 수입차 구매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며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고, 차를 통해 신분을 과시하려는 특유의 문화도 슈퍼카와 수입차 시장을 키운 배경”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장 쟁기자” 슈퍼카 브랜드 수장 방한 이어져**
시장이 커지자 슈퍼카 브랜드 수장들의 한국 방문도 늘고 있다.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만큼 트렌드를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최근 존 엘칸 스텔란티스-페라리 회장이 방한했고, 최근 애드리안 홀마크 벤틀리 회장과 토스텐 뮐러 오토보쉬 롤스로이스모터카 최고경영자(CEO)도 각각 한국을 찾았다. 특히 벤틀리는 플래그십 스토어인 벤틀리 큐브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먼저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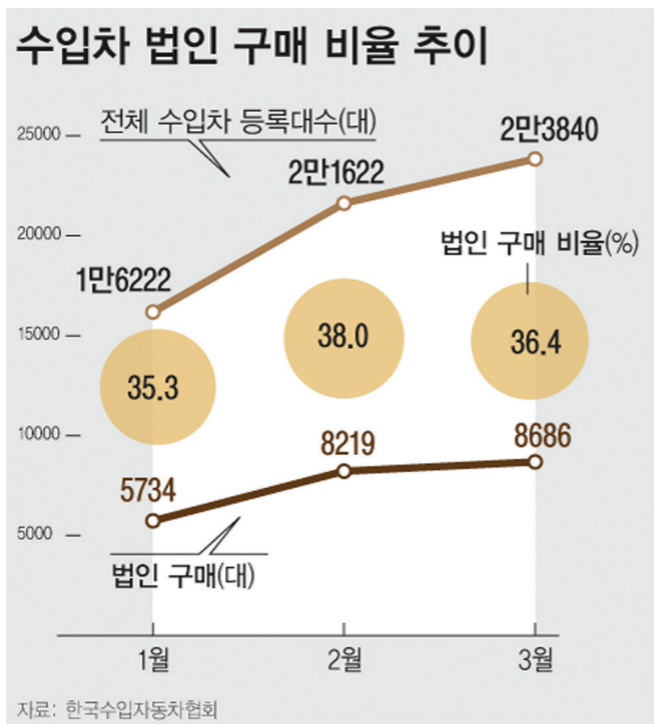


프리미엄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올해 출시 예정인 스포츠실용차(SUV) 신형 카이엔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포르쉐 제공)

들었다. 홀마크 회장은 당시 한국 시장에 대해 “수치만 봐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모두 성장 전망이 탄탄하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슈퍼카 시장 급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 성장을 들여다보면 대중 수입 브랜드가 아닌 럭셔리 브랜드 위주로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 사이에 과시 문화가 확산돼 무조건 ‘고급차’만 선호하는 현상은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난해 판매 고가 수입차 10대 중 8대 법인차”… ‘탈세’ 수단 부작용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고가 수입차 10대 중 8대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초고가 차량으로 대당 수익원에 달하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도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탈세 도구로 악용되는 법인차에 제동을 걸겠다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 기업 활동 지원 위해 법인차 세금 감면
오너 일가 등 세금 탈루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권리·감독 부실 논란에 정부 ‘전용 번호판’ 도입

브랜드별로 람보르기니는 1689대 중 1037대(80.7%)가 법인차였다. 이어 페라리는 2099대 중 1475대(70.3%), 맥라렌은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 소유였다.

◆**‘무늬만 법인차’…대학생 자녀도 내 차처럼**
고가 수입차에 유독 법인차가 많은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리스한 업무용 차량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 차량유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경비를 한도 없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늘며 ‘무늬만 법인차’라는 비판이 나온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은 시가 3억원이 넘는 포르쉐 911 타르가를 업무용으로 리스해 1억916만원 상당을 회사돈으로 지급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이 외에도 테슬라 모델X, 페라리 488 피스타, 포르쉐 타이칸, 레인지로버의 구입·리스 비용 10억원을 회사에 부담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인차로 배우자의 개인 일정이나 자녀 학교·학원 통학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된 한 사업가도 고가 수입차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했다. 이 사업가는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의 자가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세무조사도 받았다. 이 가족을 포함해 당시 집중 세무조사 대상으로 오른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 102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굴리고 있었다.

◆**오는 7월부터 연두색 명찰 다는 법인차**
법인차가 ‘꼼수 탈세’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까지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 연두색 바탕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제는 허술하다는 비판이다.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국민적 호응은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